

**The Multi-Frequency NMR Relaxation and EPR Study of Nano-sized Iron Oxide****황문정<sup>1</sup> · 이영주<sup>1</sup> · 이일수<sup>2</sup> · 장용민<sup>1,3</sup>****<sup>1</sup>경북대학교 대학원 의용생체공학과, <sup>2</sup>경북대 물리학과, <sup>3</sup>경북대 의대 진단방사선과학교실**

**목적 :** 초상자성 nano 산화철 입자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, 여러 다른 자기장 세기에서의 NMR 자기공이완시간( $T_1/T_2$ )을 측정하고, 초상자성 nano-particle 조영제의 기전에 관한 모델로부터 얻어진 계산식과 비교해보며, 다양한 온도에서의 EPR spectrum을 이용하여 이들의 전자적 성질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.

**대상 및 방법 :** 초상자성 nano-산화철 입자의 NMR 자기이완시간을 세가지 다른 자기장 64MHz(1.5Tscanner GE Medical), 128MHz (3.0T scanner GE Medical), 500MHz (11.8T FT-NMR Spectrometer Varian Unity INOVA)에서 inversion recovery technique을 이용하여 spin-lattice relaxation time( $T_1$ )을 측정하였고 CPMG technique을 이용하여 spin-spin relaxation time( $T_2$ )을 측정하였다. 초상자성 nano-산화철 입자의 전자적 성질은 nano-particle의 표면 coating 물질이 dextran 인 시료 (Feridex)와 chitosan (Chitosan) 인 시료에 대하여 다양한 온도 (108K~198K)에서 전자의 공명주파수에 해당하는 EPR 장비인 X-band(9.5 GHz) EPR spectrometer(Bruker)를 사용하여 두 시료의 전자적 상질의 차이를 비교하였다.

**결과 :** 각각의 자기장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결정된  $T_1/T_2$ 값은 64MHz에서  $165\pm8/176\pm16$ [msec], 128MHz에서  $221\pm17/123\pm12$ [msec] 그리고 500MHz에서  $665\pm5/5\pm1$ [msec]였다. 한편 해당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위 농도당 자기이완시간의 단축정도를 나타내는 자기이완율( $R_1/R_2$ )들은 64MHz에서  $6.1\pm0.7/5.68\pm1.81$ [ $\text{Sec}^{-1}\text{mM}^{-1}$ ] 128MHz  $8.12\pm1.26/8.12\pm1.26$  500MHz  $2.00\pm0.62/2.00\pm0.62$ 였다. 전자의 자기공명영상은 동일 온도에서 EPR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키토산으로 표면 coating 된 시료의 경우 dextran으로 표면 coating 된 시료에 비하여 공명주파수가 낮고 공명선풍이 넓은 경향을 보였으며 두 시료 모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중심공명주파수 역시 증가하며, 공명선풍이 좁아지고 공명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.

**결론 :** 이들 결과는 초상자성 nano-산화철 조영제의 기전에 관한 모델로부터 계산된  $R_1$ 값과 비교하여 볼 때 이론적 모델과 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반면  $T_2$  자기이완에 관한 모델과는 차이를 보임으로서  $T_2$  자기이완에 관한 이론적 모델이 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. 또한 coating 물질이 다른 Chitosan과 Feridex의 EPR 결과들은 Chitosan의 평균입자 크기가 Feridex에 비해 작고, 크기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이라 해석된다.